

연구 논문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윤 소 영*

1. 머리말
2. 김연일은 승려인가?
3. 법정사 창건의 매개체인 관음사 문제
4. 태을교와 사찰의 관계
5. 맺음말

1. 머리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18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의 法井寺의 주지인 金蓮日은 스스로 ‘佛務皇帝’라 칭하며 교도 및 제주도민 400여 명을 이끌고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제주도 내의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일본인 및 개신교인을 공격하는 무력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인원은 66명이며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31명에 이르렀다.

그동안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그 주체세력의 성격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해왔다. 주동자인 김연일을 비롯한 3인은 승려이지만 仙道敎¹⁾ 세력의 비중이 높았다는 연구²⁾와 오히려 선도교보다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도 불교가 중심적으로 주도했다고 보는 연구³⁾이다. 이렇게 상반된 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료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중심자료는 1918년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수형인 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정구용의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23), 고등경찰요사(경상북도경찰부, 1934), 김정명 편, 『조선의 독립운동』 1권 분책에 수록된 「태을교도 검거에 관한 건(太乙教徒檢擧=關係件)」(1919.12.26)이 이용되었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김연일 주변의 인물에 대한 자료여서 주체의 성격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당시의 생존자 및 후손을 대상으로 한 구술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불교 주도설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그런데 과연 법정사 항일투쟁의 주체가 불교도였을까? 이러한 의문을 갖는 이유는 ‘김연일이 불무황제를 자칭했다’⁵⁾는 점은 아무래도 불교적인 관념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갖던 중

- 1) 증산 강일순에 의해 창도된 종교로 근대에 동학계열의 종교와 쌍벽을 이루던 종교이다. 강일순은 神化一心, 仁義相生, 去病解怨, 後天仙境을 4대강령으로 수립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문을 외운다. 이 주문에 ‘흠치, 흠치’, ‘太乙天上元君’이라는 구절이 있어서 흠치교, 또는 태을교로 불리었다. 1909년 강일순이 사망한 후 제자들에 의해 각 종파가 생겨나는데 제2대 교주인 차경석이 창도한 것이 선도교이며 1922년에 보천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294~299쪽 참조.) 이 글에서는 각 자료에서 표현한 용어(선도교, 태을교, 흠치교 등)를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필자의 논지 전개에서는 ‘태을교’라 통일했음을 밝혀 둔다.
- 2)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연구」, 『종교학연구』 15, 1996;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집, 2002.12; 조성운,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2002.12.
- 3)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2005.12.
- 4) 한금순, 『근대제주불교사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동, 『한국근대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제주도-독립운동사적지』(국내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Ⅱ),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10.
- 5)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23(국가기록원 소장본)에는 ‘(1918년) 음 8월 10일 김연일은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하고 즉위식을 거행’했다고 하며 경상북도 경찰부가 펴낸 『고등경찰요사』(1934)에도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했다’고 적혀 있다.

마침 기왕의 연구에서 아직 이용하지 않은 일본 측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1922년에 조선군참모부가 작성한 보고서「태을교에 관하여(太乙教に就いて)」, 1920년에 고등경찰이 일본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기관에 보낸 보고서인「태을교 포교에 관한 건(太乙教布教に関する件)」, 그 외에 1924년에 제주도청이 발간한 『미개의 보고 제주도(未開の寶庫濟州島)』, 종로경찰서가 보천교의 실상을 파헤친 강연회에 대한 보고서(京鍾警高秘第11927號, 「講演會報告に関する件」 大正13년 9월 28일)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체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2. 김연일은 승려인가?

그동안 김연일을 승려로 본 근거는 김광식 교수에 의하면 『고등경찰요사(1934)』, 해방공간에 제주도에서 발간한 교적부, 승적첩이다. 김광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등경찰요사』, 266면에는 김연일, 정구용, 강민수는 승려로 나오고, 교적부에는 강창규가 승려임이, 현전하는 방동화의 승적첩에는 그가 1913년 기림사에서 출가하였음이 나온다.⁶⁾

즉, 이 설명에 의하면 김연일이 승려로 나오는 자료는 『고등경찰요사』 뿐이다. 관련 부분을 번역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연일의 신원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부분은 원문을 표시하였다.

⁶⁾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147쪽.

제주도 소요사건

㉗수괴 김연일은 경북 영일군 출신이며 4년 전 승려로 제주도 左面 法井寺에 거주하고(首魁金蓮日は慶北迎日郡出身にして四年前僧侶として濟州島左面法井寺に居住し) ㉘평소에 교도에게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는데 대정7년(1918) 9월 19일 옛 우란분 때에 ㉙법정사에 모인 교도 30명에게 倭奴는 우리 조선을 병탄하였을 뿐 아니라 병합 후는 관리는 물론 商人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한다. ㉚조만간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함에 따라 우선 첫 번째로 제주도에 주재하는 내지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섬 밖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 ㉛다음달 10월 5일 교도 33명을 소집하여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하고 일찍이 선언한 목적을 수행할 것을 발언하고 都大將 이하 軍職을 명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각 面里長에게 격문을 배포하여 里民을 이끌고 軍에 복종할 것을 명하였다. ㉜자신은 법정사에 머무르며 폭동을 지휘하고 전선을 절단하여 주재소를 습격하고 파괴, 소각 및 주재소원을 해쳤고 또 행로 내지인을 포박, 구타, 상해를 가하는 등 이틀간에 걸쳐 里民 약 4백명을 강제로 징집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㉝원인은 仙道敎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엄중하였기 때문에 김연일은 이전부터 친교가 있던 같은 지역의 선도교 수령 박명수와 통모하였던 것이다. (原因は仙道敎に対する警察の取締嚴重なるより金蓮日は予てより親交ある同地仙道敎首領朴明洙と通謀したるにあり)주모자는 34명으로 그 중 본 도 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記

본적 경북 영일군 이하 不詳 수괴 金蓮日 (48세)

본적 경북영일군 滄州面 승려 鄭九龍 (40세)

본적 위와 같음 승려 姜閔洙(37세)⁷⁾

이 글의 ㉗를 보면 김연일은 경북 영일군 출신임은 분명하지만, 그의 원래 신분이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단지 그는 법정사에 승려로 부임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㉘와 ㉙에 나타난 ‘교도’가 ‘불교도’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그 아래의 ‘불무황제 자처’, ‘원인이 선도교에 대한 경찰단속’ ‘같은 지역의 선도교 수령 박명수’라는 언급은 모두 선도교와 관련된 항목이다. 종래 이 부분의 해석은 김정인 교수에 의하면

7)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265-266쪽.

‘제주도 소요사건’은 평상시 반일사상을 품고 불교도를 선동했던 승려 김연일이 선도교에 대한 경찰의 취체가 엄중해지면서 선도교인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기회로 평소 친분이 있는 선도교 수령 박명수와 공모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⁸⁾

라는 것이고 그동안의 대부분의 연구자도 이렇게 해석해 왔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에도 불교도인 김연일이 선도교도에 대한 경찰단속을 문제 삼아서(원인) 자칭 ‘불무황제’라 하며 민중을 강제징발하며 지휘하였다는 맥락은 부자연스럽게 생각된다.

그 외에 김연일을 승려로 기록한 문건으로는 『1918년도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가 제시되고 있다.⁹⁾ 직업에 승려, 비고에 법정사 주지, 불무황제라고 적혀 있다.¹⁰⁾ 그런데 김연일이 체포된 것은 1920년 4월경이고 1918년 당시에는 권석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은 김연일 자신에 의한 공술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달리 「수형인명부」에 김연일의 직업은 ‘무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광식 교수는 ‘그 이유는 혹시 불교, 승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추측했다.¹¹⁾ 그렇지만 안후상 교수는 김연일이 자칭 ‘불무황제’라 칭한 점에 대해 ‘오히려 불교도라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을 리 만무하다¹²⁾고 하여 김연일이 승려라는 점을 의심했다.

이와 같은 논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일본방위연구소에 『조선사건』(1919-1920)에 수록되어 있는데 1920년 6월 10일자로 경무국 고등경찰과에서 작성하여 일본내각총리대신 이하 각 성 대신 등에게 송달한 것이다.¹³⁾

8)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집, 2002.12, 56쪽.

9)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금순, 『근대제주 불교사 연구』 참조.

10)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12, 9쪽.

11)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147쪽.

12)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연구」, 181쪽.

대정9년 6월 10일 高警 제17263호
태을교 포교에 관한 건

이번 태을교 포교에 관하여 柳必憲 외 10명은 동교 사무소를 경성부 笠井町 20번지 유필언의 집에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서를 발표했다. 동 교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姜一淳(호 증산)이라는 자가 전라북도에서 일종의 미신교인 吡哆教라는 것을 창설하여 포교를 개시한 데에서 기원한다.

그 후 명치42년(1909) 강일순의 高弟 金亨烈이라는 자가 동교의 교의를 계승하여 太乙教라 칭하는 일파를 일으켜 여전히 미신을 설파하고 민심을 유혹하여 우민의 재화를 편취하는 등 행위를 하므로 그동안 발견할 때마다 엄중 처분해왔다. 이번에 그 잔당 10여 명은 종래의 미신을 버리고 널리 世道人心을 융성하게 하겠다고 하여 그 재흥을 기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참고로 吡哆教, 태을교 및 仙道敎의 유래를 첨부한다.

발송처

내각총리대신, 각성대신, 척식국 장관, 경시총감, 검사총장, 조선군사령관, 양 사단장, 헌병대사령관, 진해요항부사령관, 관동장관, 동 군사령관¹⁴⁾

이 문서에는 태을교 창립 취지서 번역문(일문)과 함께 흠치교 유래, 태을교 및 선도교의 유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김연일과 관련하여「태을교 및 선도교의 유래」의 전문을 번역하여 옮긴다.

태을교와 선도교의 유래

강일순은 1909년 음 1월 전기한 金亨烈에게 와서 吡哆敎의 포교에 주력했는데 동년 음 6월24일 병을 얻어 객사하자 그동안에 高弟가 된 金亨

13) 「密第102號其975, 太乙敎に関する件」, 『朝鮮事件』大正8年乃至10年共7冊其6, 陸軍省大日記, 防衛研究所 소장,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4) 「高警 제17263호, 太乙敎に関する件」, 大正9年6月10日,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켰은 일순의 명을 받들어 그 유지를 계승하여 다른 高弟와 함께 <吡嘑의 교리는 심원하고 그 근원을 유불선의 3교에 소급하여 그 장점을 취한 것이다. 이 점은 실로 본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여 단연 다른 종교의 추종, 능가를 허락하지 않는 바이다.>라고 하여 오로지 포교를 힘써 했다.

대정원년(1912) 金亨烈과 차경석 두 명은 세력항쟁의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한 결과, 金亨烈은 결국 주문의 모두인 두 글자를 택하여 이름을 태을교(태을이란 불교에서 공중에 태을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한다.) 로 고치고 이래 점점 교세를 부식하기에 노력한 결과,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 각도에 걸쳐 다수의 신도를 증가하기에 이르렀지만 일시 교세가 쇠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차경석은 金亨烈에 대항하여 仙道敎라는 일 분파를 창설하고 각지에 전전하여 신도를 모집했다. 대정7년(1918) 국권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차경석 및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 김연일 등이 서로 모의하여 동년 9월 19일 盂蘭盆會에 전라북도 제주도 법정사에 교도 약 30명을 소집하여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합했을 뿐 아니라 병합 후는 관리는 물론 상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가혹하게 대우하였다. 실로 왜노는 우리 조선민족의 원수이다. 조만간 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이니 교도는 우선 첫 번째로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관리를 삼육하고 그 후에 商民을 島外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파하였다.¹⁵⁾

그 후 10월 4일 밤부터 다음날 5일에 걸쳐 金蓮日은 그 수하를 島內 각지에 파견하였고 더욱 신도 33명을 법정사에 소집하여 스스로 불무항제라고 칭하고 일찍이 선언한 목적을 결행할 것을 발언했다. 그 방법을 협의하여 대오를 정비한 후에 부근 각면리장에게 “일본관리를 掃伐하고 국권을 회복할 것이므로 즉시 장정을 이끌고 참가할 것. 만약 따르지 않으면 군율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것임”이란 의미의 격문을 배포하였다. 6일 밤부터 제주성 안으로 향하여 행동을 개시하고 도중 전선을 절단하고 또 내지인 의사 외 조선인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음날 7일 아침 中門里에 도착하여 동지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고 방화, 전소시킨 사

15)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東京錫は金亨烈に對抗して仙道敎なる一分派を創設し、各地に轉々して信徒の募集に従事せしが、大正7年国権恢復の美名の下に東京錫及び慶尙北道迎日郡出身金蓮日等相謀り同年9月19日盆蘭盆會に際し、全羅北道濟州島法井寺に教徒約三十名を召集し、倭奴は我が朝鮮を併合せしのみならず、併合後は官吏は勿論商民に至るまで我同胞を虐待し、酷遇せり。實に倭奴は我が朝鮮民族の仇敵なり。近く仏務皇帝出現し、国権を恢復せらるるを以て教徒は先ず第一に島内居住の内知人官吏を殺戮し、然る後商民を島外に驅逐せざるべからず説き教えて10月4日夜より(下略)

실이 있다. 그리하여 그 때 폭도 38명은 검거하였지만 차경석과 김연일 등 간부는 신도에게 거둔 수 만원을 갖고 소재를 감추어 지금 역시 행방 불명이다.

이상.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강일순이 만든 종교가 태을교(흙치교), 그리고 강일순의 사후, 차경석이 만든 종교가 선도교이며 여기에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차경석과 경상북도 영일출신의 김영일이 모의하여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김연일은 차경석과 함께 선도교 신자라는 점, 법정사에 모여 항일운동에 참가한 교도 30여 명은 선도교 신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 차경석과 김연일 등의 간부는 행방 불명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매일신보』 1920년 4월 12일자에는 김연일의 체포 소식이 실려 있다.

제주도에서 불무황제라 하고 부하 칠백 명을 거느리고 소요하던 김연일(51)은 목포지청에서 결석재판을 받고 징역 10년죄로 종적이 없다가 이삼월 중에 제주도로 돌아간 것을 체포하였는데 이번에 목포문감에서 복죄하였다더라. (광주)¹⁶⁾

앞서 인용한 경무국 고등경찰과에서 1920년 6월 10일자로 작성된 高警 제17263호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매일신보』 1920년 4월 12일자에 2, 3월 중에 제주도에서 체포되었다고 하니 일자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치백년사총서-조선독립운동 제1권 분책』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첨부문서「흙치교 유래, 태을교 및 선도교의 유래」가 1919년 12월 26일자로 작성된 고경제36610호「태을교도 검거에 관한 건」의 첨부문서로 되어 있다.¹⁷⁾

16) 『매일신보』 1920년 4월 12일자.

17) 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朝鮮獨立運動(民族主義運動編)』 第一卷分冊, 原書房, 1967, 246~247쪽.

즉, 차경석과 김연일이 ‘아직 행방불명’이라고 한 시점은 1919년 12월 말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첨부문서는 경무국 고등경찰과가 1920년 6월 10일자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한 문건에도 참고자료로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측의 보고 문건에는 김연일이 차경석이 이끄는 ‘선도교’의 간부로 파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4년에 제주도청이 발행한 채자에도 이와 유사한 설명이 보인다.

최근에 대단한 기세로 신도가 격증하여 위대한 세력을 이룬 것이 보천교이다. 이는 종교로 공인된 것이 아니라 종교유사단체에 그치는 것이다. 그 기원은 약 20년 전 吡哆教라는 것을 전북 정읍 사람 강중산이라는 자라 仙道敎로 고치고 자신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구실로 하여 신도를 회유할 때 의술을 이용하여 이 교를 믿으면 어떠한 불치병도 금방 낫는다고 하여 우민을 끌어들이고 강중산은 교주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몇 년 전 병으로 죽고 그 高弟인 차경석이라는 자가 이를 계승하여 포교에 종사하였다. 그는 조선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여러 가지 술책을 부려 신자를 끌어들이었다.

대정 2년(1913) 경상북도 사람 김연일이라는 자가 본도에 와서 교도를 모집하기에 부심했다. 그 선언하는 바는 국권회복에 있다고 하여 주장하기를 하나의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대정7년(1918) 10월 좌면 중문리 경관주재소를 부락민 수백 명을 이끌고 습격하고 주재소에 방화했는데 경관이 급행하여 폭민을 해산시켰다.¹⁸⁾

고 하였다. 이 기술에도 차경석과 함께 김연일이 태을교(선도교)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김연일의 신원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논거로 이용한 경상북도 경찰국에서 작성한 『고등경찰요사』는 일제강점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 중 경상북도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 즉, 김연일이 경상북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문건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전후 관련사항이 누락된 채로 일부분이 간략하게 서술됨으로써 그동안 연구자들의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18) 『未開の寶庫濟州島』, 全羅南道濟州島廳, 1924, 44~45쪽.

판단된다.

김연일이 태을교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은 정구용 판결문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김연일이 신도들에게 한 이야기에 대해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당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제야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나와 이들 조선인민을 구제토록 명을 받았다. 19)

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에는

김연일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말씀에 근거하여 조선전토에 불교를 퍼트리고 선정을 펴기 위해 義軍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내지인 관리들을 섬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협력하여 원조해주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말을 설파했다. 20)

고 한다. 정구용과 강창규 모두 김연일과 관련하여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 여기에 조선전토에 불교를 퍼트리자고 하여 일견 그의 사상의 기반이 불교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가 승려라면 ‘옥황상제의 말씀에 근거하여 불교를 퍼트린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불교를 퍼트리고 선정을 펴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자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옥황상제란 무엇일까? 조선군 참모부가 정리한 「태을교에 관하여(太乙教に就いて)」에는 강일순의 종교 창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정치의 부패가 극에 달하여 포학무도, 백성을 괴롭히기를 일삼는 지방관은 팔도에 충만하고 인민은 도탄에 괴로워하여 원성이 하늘에 가득찼다. 그래서 수백년 이래 고질인 班常의 계급과 빈부의 차별은 이르는 곳에서 비참한 현상을 노정하고 한편으로는 외국의 침해가 시

19)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6쪽에서 재인용.

20) 한금순, 『한국근대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15쪽에서 재인용.

작되는 때였다. 이와 같은 세상의 비통, 忿怨의 공기가 충만한 것을 보고 그는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여 이에 유교와 불교와 선교에 관한 서적을 읽고 무언가 신종교를 발견하려고 하여 지금부터 22년전 신축년(1901)에 묘리를 회득하였다고 하여 유불선 삼교를 합하여 하나의 종교를 창설하고 '去病解怨'이라는 주의를 창도하고 자신은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옥황상제(천제)로 이 세상에 강림한 것이라고 자칭했다. (중략)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는 先天이며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이후는 後天이다.(하략)²¹⁾

옥황상제란 다른 아닌 강일순을 말하는 것이다. 옥황상제가 강일순을 가리킨다는 점은 1924년 9월 28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보천교 내막 조사 보고」를 발표한 韓愼教, 任鳳淳의 강연에서도 확인된다.²²⁾ 즉, 김연일은 승려라기보다 승려의 외피를 두른 태을교(선도교) 간부급 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법정사 창건의 매개체인 관음사 문제

법정사 항일운동은 불교승려가 주도했다는 설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거론되는 것이 근대에 제주에서 최초로 창건된 관음사이다. 1908년경 창건한 관음사가 법정사 창건을 유도했고 이를 기반으로 외지에서 온 승려들과 제주 내의 승려들이 활동했다고 설명되고 있다.²³⁾ 필자는 이 점도 의심스럽게 생각된다. 관음사를 창건한 이는 안봉려관이라는 여성이다. 관음사 창건과정에 대해 『매일신보』에 두 차례 기사가 연재되었는데 이

21) 朝鮮軍參謀部, 「密第8號其40, 太乙教に就いて」, 『大正11年朝不逞鮮人狀況報告』, 陸軍省, 일본방위연구소 소장. 정리번호 0982-0984쪽.

22) 京鍾警高秘第11927號, 「講演會報告に関する件」大正13년 9월 28일, 경성총로경찰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23) 한금순, 『한국근대제주불교사』 참조.

글은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제주도 아미산 관음사라는 절은 봉려관이라는 여승이 자기 한사람의 힘으로 창조한 절인바, 그 뒤에 安道月을 주지로 삼아 전도에 종사하던 중 신도의 수효가 수백 명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자에 그 절의 규모를 확장하였고 또 이왕에는 법정산 법동사(法井山法凭寺)라는 절도 건설하였더라. (중략)원래 제주도에는 불법이 많이 퍼져서 그 곳 생장으로 불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절만 하여도 오 백여 곳이 있던 바, 지금부터 삼백여년전에 (중략) 절을 혁파시킨 이후로는 관가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그럭저럭 불도가 쇠하고 말았더라. 그러나 제주 인민의 피 속에는 부처를 믿는 정성이 부지중에 흘러내려와 비교적 다른 지방보다는 부처와 인연이 많은 곳이라. 그 지방에서 생장한 봉려암은 38세가 되도록 여염집 부녀로 있어 유자생녀하고 살다가 (중략)외로운 영혼을 위대한 부처에게 위탁하기로 홀연히 집을 떠나 여승이 되고 말았었다. 속된 인간과 인연을 끊고 부처에게 몸을 위탁한 봉려관은 각처로 표박하여 다니다가 배편을 따라 육지로 건넜었다. 한번 육지에 건너선 이후로는 각 사찰을 유람하여 자취를 산간에 부치고 경문을 배우며 염불을 외다가 다시 고향으로 발을 돌이키어 자기 집으로 도장을 삼고 밤낮으로 염불삼매에 들어있더라. 동리의 완고가 이를 또 박대하여 불상을 깨뜨리고 동리 밖으로 쫓아 내었더라. 동리 사람의 학대를 받아 갈 곳 없이 된 봉려관은 더욱 부처의 위대한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신앙이 굳게 되며 그길로 한라산 중을 향하여 정처 없이 들어가더니 이윽고 菱花峯에 당도하니 난데없이 꿀벌 한 떼가 산위로부터 날아와서 봉려함의 전신을 둘러싸고 어느 곳으로 향함인지 앞길을 전도하였더라. (중략) 백록담이라는 옛날 절터에 당도되었는데 지금까지 몸을 둘러싸고 앞길을 인도하던 꿀벌은 일시에 흩어져 날아가버리더라. 봉려관은 이 일을 이상히 여겨 필경 부처의 인도라 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만 칠일동안에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염성으로 기도를 하였더라. 기도를 마치던 날에는 정신이 깨끗하고 몸의 피곤한 기운이 가시어 무슨 영험이 그 몸에 내린듯한지라. 만 칠일기도를 마치고 다시 산을 내려오더니 내려오는 길에 어찌하다가 발을 잘못 디더 수 십길이나되는 절벽에 떨어졌더라. 만일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때에 물론 전신이 부서졌을 것이나 이상하다 난데없는 오작이 모여들어 앞뒤로 부축하고 평지에 내려다가 곱게 놓고 갔다. 봉려관은 두 번째 이와 같이 기

이한 일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 일을 생각하여도 어찌 할 까닭을 알 수 없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한참 쉬더니 칠팔일 동안의 피곤한 기운이 일시에 폭발되어 부지중에 남가일몽을 이루었더니 꿈 속에 한 노인이 와서 말하되 지금 도사가 가사 일습을 전할 차로 수륙 수천리에 수로함을 사양치 않고 찾아왔으니 속히 나가 맞이하라 하기를 깜짝 놀라 일어나니 이는 한 꿈이더라. 그러나 하도 역력하고 이상한 꿈인 고로 이는 심상한 일이 아니라고 정신을 가다듬어 山川壇이란 곳으로 내려오니 마침 충청도 계룡산에 산다는 노승이 있어 합장비례하며 말하되 몇 달 전에 부처님이 현몽하여 말하되, 남해 섬 가운데에 한 도승이 나타났으니 너의 유전하는 가사를 친히 전수하라 하기로 곧 행구를 차리어 남방의 모든 섬을 널리 찾았으나 종적이 망연하더니 지금 우연히 귀인을 만났으니 원컨대 가사를 받으소서 하고 (중략) 그 뒤로 봉령관은 열성으로 공부를 하며 전도에 힘써 신도도 많이 늘었으며 정법산(定法山)에 법돌암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다시 아미산에 관음사를 창건하였다함은 여기 기록한 바와 같더라.²⁴⁾

이 기사에는 제주도는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쇠퇴하였으나 내면에는 불심이 강한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봉령관이 관음사를 지은 후 신도가 수백 명이나 증가하고 이어 법정산에 법돌암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관음사의 웹 홈페이지에는 창건연대를 1908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의 불교 포교 상태가 안봉령관에 관한 이야기와 부합할까? 1924년에 제주도청에서 발간한 『미개의 보고 제주도』에는 제주도의 불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선의 종교는 옛날에는 불교가 매우 왕성해서 일본에 전해주었다, 불교도 조선을 경유해서 도래했다는 정도로 조선 각지에 불교에 속하는 대가람의 사원은 있지만 그 종교상의 세력은 매우 미미한 모습이다. (중략) 본도에서는 제주도 我羅里 한라산 중턱에 임계중에 속하는 관음사라고 하는 一宇가 있고 승려가 몇 명 있지만 포교상의 세력은 미약한 것이다. 그래서 도민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혹은 성묘하는 경우에 아무런 불

24) 「제주도 아미산 봉령관의 기적」, 『매일신보』, 1918.3.2, 3.3

교상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승려의 포교 연설 등, 민중을 감화 선도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볼 수 없다. 단 본도에 이주해 온 내지인을 위해 제주면 三徒里에 본원사 포교소가 있어서 내지승 1명을 주재하고 한편으로는 내지인 측으로 포교에 종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무소의 敎誨師를 겸무하여, 囚人의 감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장래는 다수의 조선인을 상대로 하여 크게 포교에 노력하고 심령계의 개척에 노력해줄 길 바란다.²⁵⁾

이 글을 보면 앞서 인용한 매일신보의 기사와는 정반대로 불교가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쪽 기술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매일신보』의 관련기술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봉령관이 불가에 귀의하게 된 과정을 보면, 불면불식으로 만 칠일 동안 기도하였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벼랑에서 떨어져도 몸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야기, 꿈 속의 노인, 현실에서 계룡산에 산다는 노승을 만나는데 그는 남방의 모든 섬을 찾아다니다가 제주도에 왔다고 하며 가사 한 벌을 봉령관에게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이 경험담이 주목되는 이유는 당시 태을교(선도교)의 수도과정과 닮았기 때문이다. 즉,

우선 준비한 공물을 늘어놓고 ‘玉皇上帝降靈之位’라고 적은 종이를 바치고 소위 태을주문을 암송한다. 그 후 네 번 절을 하고 그 밤은 피곤하여 누울 때까지 ‘흠치’ 주문을 외치고 잠자리에 든다. 그 다음에 7일간 주야로 그 주문을 암송한 다음 눈을 뜨고 앉으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 혹은 인형이라고 하고 혹은 호랑이가 왔다고 하고 혹은 산, 혹은 하천 등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개안’이라고 한다. 1년 혹은 1년간 주문을 외치면 위용을 갖춘 사람이 그 눈앞에 나타난다. 이를 본 교에서는 ‘승인’이라고 한다. 또 주문을 외우면 몸이 비약하는 것처럼 되고 ‘轉身’ 혹은 ‘降靈’이라고 한다.²⁶⁾

는 것인데 안봉령관의 경험과 유사하지 않을 수 없다.

25) 『未開の寶庫濟州島』, 43쪽.

26) 朝鮮軍參謀部, 「密第8號其40, 太乙教に就いて」, 정리번호 1001-1002쪽.

또한 계룡산은 강일순이 1924년 갑자년에 재림한다고 알려진 장소이며 차경석은 2대 교주로서 황제가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회자되고 있었다.²⁷⁾ 당시 태을교단에서는 태을교를 열심히 신앙하고 다액의 금액을 기부하는 자는 ‘갑자년에 흠치교의 개조 강일순 선생이 재생하여 동양의 맹주가 될 때 고위고관을 받을 것이고 그 때 태을교도 이외의 자는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태을교도는 그 분배를 받을 것’²⁸⁾이라고 선전했다. 게다가 경무국 종교과의 나카구치 고타로(中口光太郎)는 정감록의 유행을 언급하며

계룡산은 충남의 영지, (중략)〈鄭氏興國〉의 표본은 종래 널리 선전되어 현재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고 국권회복을 논하는 데에도 이를 이용하여 신뢰를 얻고자 하는 자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책 속에 기술한 바의 爾餘의 예언도 이미 과거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적중했다고 한다.(중략) 명철보신의 방책은 궁궁을 사이에 채가 있다고 하는 것은 〈弓弓乙乙〉이 ‘弱’자이므로, 강자가 오히려 먼저 망하고 약자는 몸을 보존한다고 해석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깊이는 도저히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다.(중략)이에 더하여 최근 독립운동이 개시되기 전에도 ‘정씨흥국’의 예언을 과신하고 그 도읍지로 지목되는 충청 계룡산에 이거하는 자가 속출하였다.²⁹⁾

고 하여 정감록에 의거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계룡산으로 쏠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차경석 자신도 자신의 친 아버지가 정씨였다고 하여 자신이

27) 朝鮮軍參謀部, 「密第8號其40, 太乙教に就いて」, 『大正11年朝不逞鮮人狀況報告』, 陸軍省, 일본방위연구소 소장, 문서정리 페이지 0982-0984쪽. “본 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괴한 풍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 교를 신봉함에는 그 제2세 교주인 차경석이 갑자년(1924) 4월 황제가 되고 수도를 계룡산(충청남도)에 정함에 따라 그 교도는 원하는대로 고관대작을 받을 것이라고 하던가, 또한 앉아서 세계의 형세를 알 수 있다던가, 혹은 장생불사의 수명을 얻을 수 있다던가, 심지어는 天帝를 알현하고 죽은 부모를 만날 수 있고 또 생전에 冥土에 가서 수명을 임의로 늘일 수 있다는 등 그 허망황탄한 설은 도저히 식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없게 한다.”

28) 高警第36610號, 「太乙教徒檢舉二關スル件」 全羅北道知事報告要旨, 1919년12월26日,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8권, 종교운동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9) 中口光太郎, 「朝鮮に於ける迷信犯罪(4)」, 『警務彙報』 182호, 1920, 32~34쪽.

정도령임을 내세우기도 했다.³⁰⁾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의 종교체험은 태을교 계통임이 짐작되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의 신앙 형태를 보고한 문건에도 불교보다는 무속이 발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도민은 예부터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남녀 巫者가 매우 많아서 타인의 병이나 재난을 쫓아낸다고 하여 낮밤으로 계속 북을 두드리고 입으로 수상한 주문을 외치고 춤을 추어 귀신에게 기도한다. 오랜 병자는 약수를 마시고 巫者의 주문을 기뻐하는 풍조가 있다. 또 조상의 분묘를 소중히 하는 미풍이 있는 것은 육지와 다르지 않다. 부모의 죽음을 당하면 風光明媚한 땅에 분묘를 구하고 시체를 가매장한 채로 몇 년을 보내고 또 장례식의 일시, 방향, 장소를 정하기 위해 몇 개월을 소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松脂로 관의 내외를 바른다고 한다. (중략) 또한 본도의 巫者에 대해 한마디 하면 그 기원은 알기 어렵지만 이미 수백년전부터 각종 화복길흉을 귀신에게 기도한 것은 분명하는데 약 30년 전 경찰령으로 巫者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우민을 현혹하고 공안을 해친다고 하여 기도를 엄금했는데 각지에 산재한 巫者는 생활이 곤궁하여 경찰관의 눈을 피해 몰래 기도 의뢰에 응하였다.³¹⁾

고 하였다. 그 기도하는 내용도 ‘산신귀신의 무속’, ‘석존에게 비는 불교’가 혼합되어 있었다.³²⁾ 또한 제주도의 이러한 신앙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안후상이 1920년대 국내자료를 통하여 지적한 바 있다.³³⁾ 이러한 제주도의 신앙적 성향은 태을교의 포교방식에 제주도의 민중이 경도할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이해된다. 강일순은 1903년에 제주도에 와서 바닷물이 사라지게 하는 이적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 그를 따랐다고 이야기³⁴⁾도 이러한 상황과 부합한다. 앞서 언급한 한신교와 임봉준의 「보천

30) 京鍾警高秘第11927號, 「講演會報告に関する件」.

31) 『未開の寶庫濟州島』, 16쪽.

32) 위의 책, 17쪽.

33)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연구」, 175쪽.

34)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편, 『증산도도전』, 대원출판사, 1992, 안후상, 위의 논문, 176쪽.

교 내막 보고」 강연에는 1924년 현재 보천교도가 전국에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 교인이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로서 제주도민 4만 명 중 2만 명이 보천교도라고 하였다.³⁵⁾

4. 태을교와 사찰의 관계

그렇다면 태을교와 사찰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조선군참모부의 보고 등에 의하면 강일순은 20세에 단신으로 방랑길에 나서 삼남지방을 편력하고 한 때 경상북도 금산사에서 불서를 연구하던 중 흠치교의 주문을 완성했다고 한다.³⁶⁾ 그리고 유교와 불교, 仙敎에 관한 서적을 읽고 1901년에 '모리를 회득하여 유·불·선을 합하여 하나의 종교를 창설하고 '拒病解冤'의 주의를 창도했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⁷⁾ 1924년 9월 28일,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보천교의 내막조사」에 대한 강연에서는 강일순이 한 때 금산사의 승려였으며 자칭 미륵불이라고 했다고 하였다.³⁸⁾ 강증산은 1901년 모악산 대원사에서 49일 동안 금식수도를 했다.³⁹⁾ 이 때 대원사의 주지朴錦谷으로부터 많은 편의를 제공받기도 했다.⁴⁰⁾ 이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을교 탄생의 기반이 된 것이 사찰이며 강일순이 미륵불을 자처한 것처럼 불교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고 있었다

35) 京鍾警高秘第11927號, 「講演會報告に關する件」, 정리번호 194쪽.

36) 朝鮮軍參謀部, 「密第8號其40, 太乙敎に就いて」, 정리번호 0982-0988쪽. 이 문서에는 흠치교의 기이한 주문에 대해 서술하면서 이 주문의 전설에 의하면 "강일순이 경상북도의 金山寺라는 작은 암자에 가서 佛書를 연구할 때 어떤 道師가 만들어 준 것을 뽑아서 만들었다고 한다.(중략) 아무튼 강일순이 전부 만들어내고 창작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37) 朝鮮軍參謀部, 「密第8號其40, 太乙敎に就いて」, 정리번호 0983쪽.

38) 京鍾警高秘第11927號, 「講演會報告に關する件」, 정리번호 194-195쪽.

39)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증산의 생애와 사상』, 대순진리회출판부, 1979, 65-68쪽.

40)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294쪽.

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에는 생전에 강증산이 모악산 금산사에 내왕했던 내용이 들어있다. 강일순이 죽음을 앞두고 장인이자 고제인 김형렬에게

정감록에 금불이 말을 잘한다고 한 것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내가 죽으면 금산사에 세워져 있는 삼체불의 가운데인 미륵불의 뱃속에 나의 영혼이 머무를 것이므로 너희는 항상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고 하여 그 후

신도들은 관현의 눈을 피해 항상 밤중에 돼지고가 소고기 및 술을 지참하고 이 불상에 대해 지성으로 염원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원래 사찰의 법당에 술과 고기를 갖고 가는 것은 승려가 매우 기피하는 바이다. 따라서 처음은 반대하여 이를 금했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신도는 몰래 많은 금전을 절의 승려에게 주고 기도를 계속⁴¹⁾

했다고 한다. 이처럼 금산사는 태을교도에게 강일순을 상징하는 사찰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모악산 금산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찰이 그 본산인 위봉사이다.⁴²⁾ 위봉사는 봉령관과 함께 관음사를 창건한 김석윤이 1894년에 사미계를 받았다고 하는 절이다. 그뿐 아니라 김형렬은 위봉사의 승려와 모의하여 태을교도를 위봉사의 불교신자로 등재시킨 혐의로 체포,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은 1919년에 발생했다.

지난달 12일 이래 전라북도 제3부에서 일종의 미신사교인 태을교도 검거에 착수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달 26일 보안법 위반으로 신병과 함께 사건을 소관 검사국에 송치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중략) 1. 발

41) 朝鮮軍參謀部, 「密第8號其40, 太乙教に就いて」, 정리번호 1000쪽.

42) 위와 같음.

각의 단서 지난해(1918년) 8월 태을교 교주 김형렬은 동 교도와 함께 위봉사의 壇信徒가 되어 이래 위봉사 및 동 사의 전주포교당에 회합하였는데 한번은 위봉사 주지 郭法鏡도 미신 사교인 태을교도를 불교에 귀의하게 하여 세도인심을 돕는다고 칭하고 각지를 순회 포교하여 태을교도의 불교 귀의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김형렬 및 광법경은 불교도라는 가명 뒤에서 태을교도를 규합하여 자신들의 사복을 채우고 또 장래 동 교의 단체적 세력을 이용하여 불온한 계획을 하려는 것 같은 사실을 탐지하여 11월 12일 검거에 착수하였다.⁴³⁾

고 한다. 김형렬과 함께 행동한 인물은 다름 아닌 위봉사의 주지인 광법경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김형렬이 1918년 8월 16일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 주지 광법경을 찾아가 태을교는 미신교로 관현의 단속이 엄중하여 공연히 포교하지 못하는데 귀하는 다행히 목하 壇信徒 권유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우리 교도를 표면적으로 단신도로 해주면 위봉사의 경비는 물론 승려의 수당 등도 부담할 것이라고 의뢰하고 광법경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부터 태을교도는 표면 위봉사의 단신도가 되고 그 거짓이름에 숨어서 공연히 위봉사의 말사인 금산사 및 위봉사의 전주포교당에서 회합하여 태을교의 포교를 했다.⁴⁴⁾

고 한다. 태을교도들이 위봉사의 불자인 것처럼 꾸미고 태을교 측에서 위봉사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봉사뿐 아니라 그 말사인 금산사와 위봉사 전주포교당에서 태을교도들의 회합이 이루어졌다. 그뿐 아니라 김형렬은

위봉사 전주 포교당에 있으면서 스스로 壇信徒 총대장이 되어 (중략) 경기,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황해, 평북 및 강원 각도에 단신도 총대 100명을 두고 교묘하게 관현의 시선을 피하여 다음과 같은 언동을

⁴³⁾ 高警第36610號, 「太乙教徒檢舉二關スル件」 全羅北道知事報告要旨, 1919年12月26日.

⁴⁴⁾ 위와 같음.

일삼으로 태을교의 입교 권유를 꾀하였다”⁴⁵⁾

고 한다. 즉, 전라도뿐 아니라 전국에 단신도 총대를 두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불교사찰을 이용하여 태을교의 포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경무국에서 압수한 위봉사에 비치되었던 태을교에 속한 단신도 명부에는 약 4,50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⁴⁶⁾ 이들은 흠치교(태을교)의 개조 강일순 선생은 하늘에 올라 미륵불이 되었으므로 태을교도는 미륵불에 많은 금품을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광범경은 금산사 승려 김익현에게 태을교도로 불교에 귀의하는 자가 현재 7천여 명에 달하여 금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하며 김익현에게 태을교도가 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⁴⁷⁾

이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불교는 태을교 포교의 근거지 및 외피로 이용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무단통치 하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태을교도들이 자유롭게 종교집회를 할 수 없었던 데에서 착안된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당시의 제주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위봉사에서 사미계를 받은 김석윤은 제주도에 돌아와 1897년부터 유교경전과 불교경전 공부를 하였고 1898년에는 대흥사에서 1902년에는 통영 용화사에서 공부, 1916년에는 범어사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1909년에 의병을 일으켜 체포된 적이 있으며 1911년에는 해월학원에서 교사생활을 하기도 했다.⁴⁸⁾ 해월은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호이므로 이것은 동학 관련 사학 기관이다. 김석윤의 유교와 불교, 도교를 아우르는 사상편력은 ‘태을교’의 사상과 맥이 닿는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 강창규는 1892년 위봉사의 말사인 죽림사에서 출가했다고 한다.⁴⁹⁾ 봉려관 또한 해월

45) 위와 같음.

46) 위와 같음.

47) 위와 같음.

48)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2002.12, 24~25쪽.

스님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녀가 수행하던 토굴을 해월굴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이들의 사상이 유불선을 결합한 형태로 태을교와의 관련성을 엿보게 한다.

법정사 항일투쟁에 가담한 梁南久는 정구용 재판 관련 심문조서에서

나는 대정7년(1918) 음 2월경부터 불교도가 되었는데 법정사에 3년 전부터 김연일이라는 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동년 음 8월 15일 법정사에 갔는데 남녀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김연일은 모두에게 이번엔 불무황제인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 조선 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조선을 잘 다스려 독립국으로 하기 위해 힘을 다하게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불무황제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우리는 모두 찬성했다. 동년 9월 1일, 절에 갔더니 남자 30명이 있었는데 김연일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불무황제다. 지금부터 조선정치를 개량하게 되는데 먼저 그 수단으로 내지인(일본인-역주) 관리를 이 섬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나의 명에 따라 부락 인민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인민들을 모아 먼저 중문리 순사주재소를 습격하고 일본 관리를 몰아내도록 하라고 명령하여 우리는 이에 따라 법정사를 내려와 각 부락에서 인민을 모으면서 중문리 주재소에 가서 이곳을 방화 파괴하게 되었다.⁵⁰⁾

고 하였다. 김연일은 처음에는 ‘불무황제’의 출현을 신도들에게 예고하더니 거사 당일에는 자신이 ‘불무황제’라고 자처하며 신도들에게 무력봉기를 하도록 선동한 것이다. 역시 가담자인 金仁秀는

대정7년 음 9월 김연일은 인민을 모아 軍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내지인(일본인-역주)을 추방하고 우선 제주도의 왕이 되어 그 후 수도를 충청남도 계룡산에 세울 계획이라고 말하였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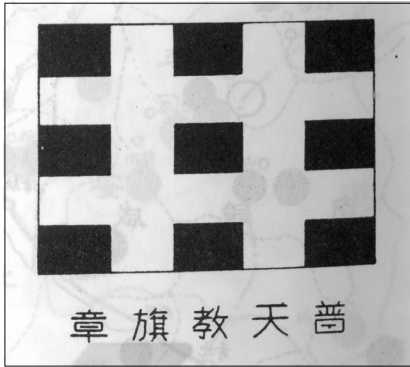
고 진술했다. 진술한 바와 같이 계룡산은 1924년 갑자년에 강일순이 재림

49) 한금순, 『한국근대제주불교사』, 51쪽.

50)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정리번호 0467-0468쪽.

51)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정리번호 0470쪽.

한다고 알려진 장소이다. 이와 같은 내용도 김연일의 태을교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



보천교 旗章
(출전: 村山智順, 『朝鮮의類似宗教』, 조선총독부, 1935, 7쪽.)

제주도의 근대 사찰은 한금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관음사 이후 전혀 허가되지 않다가 1924년에 이르러 원당사와 무관암이 허가되었을 뿐 위봉사의 말사로만 덕사는 허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를 김석윤, 강창규 등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이가 위봉사 계열이라서 그럴 것이라고 추측했다.⁵²⁾ 그런 점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태을교와 관련한 위봉사 ‘태을교도 불자 명부

위조사건’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法井寺라는 사찰명도 예사롭지 않다. 봉려관에 관한 매일신보의 기사에는 법돌암의 위치를 定法山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고지도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런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법정사 근처에는 법정악이라는 봉우리 명칭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법정사항일운동을 현양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의문을 갖는 이유는 보천교의 教章이 ‘卍’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水源이며 물은 만물을 생성 양육하는 것이므로 보천교의 덕화가 널리 중생에게 미친다는 것을 표상한 것이라고 한다. 이 깃발은 황색바탕에 ‘卍’자를 붉게 물들인 것이다.⁵³⁾

당시 삼남지방에서 태을교의 교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1921년에 저술된 자료를 보면

52) 한금순, 『한국근대제주불교사』, 145쪽.

53) 村山智順, 『朝鮮의類似宗教』, 328쪽.

경상남도 부산 부근에도 다수의 신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부산부의 조선인 거주자 수는 약 4만 명인데 그 중 2만여 명이 태을교 신자라고 하니 그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들은 별도로 일정한 집회소 혹은 공동적인 예배를 하는 祭場 같은 것도 없고 각 집에서 수많은 신단을 설치하고 매일 조석 구별 없이 신앙에 몰두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울 정도이다. 최근에는 이것이 한층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어떤 목격자의 말에 '시험 삼아 부산의 조선인 부락을 걸어가 보면 반드시 '흠치흠치, 태을성신, 假政 3년 만에 무너지고 眞政(聖政)이 나타나 흠치의 가호, 하늘과 같다' 운운 외치고, 일심으로 神을 읊조리는 소리가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고.⁵⁴⁾

고 하여 부산 지역에서 태을교도가 번성한 모습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보천교 교세도 매우 활발하여 1924년 현재 수만 명이라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이다. 1922년 보천교가 전국에 최고포교기관으로 진정원을 설치했을 때 제주도에도 진정원이 설치될 정도로 교단 측으로부터 중시된 지역이었다.⁵⁵⁾

그렇다면 법정사 항일운동이 계획된 과정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전경』에는 강일순이 죽기 1년 전인 무신년(1908) 11월에 兵部를 차경석에게 맡겼다고 한다.⁵⁶⁾ 강일순은 이것은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업무라고 하였다. 차경석은 1909년 강일순의 사망 후 교통을 전수 받아 2대 교주가 되었다.⁵⁷⁾ 차경석과 함께 강일순의 측근이었던 김형렬은 강일순의 사후, 금산사에 들어가 정진 수도하는 과정을 거쳤다.⁵⁸⁾ 그 후

54) 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京城, 森書店, 1921, 359쪽. 서문을 보면 저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종교 상황을 조사한 결과로 작성되었다고 하였다.

55) 『未開の寶庫濟州島』, 45쪽.

56)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1974, 179쪽. 우봉규, 『이 길의 나의 마지막 길-증산평전』,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3, 379쪽. 상제께서 11월에 대흥리의 경석의 집에 계시면서 포덕소를 정하는 공사를 보셨도다. (중략) 경석에게 '너는 兵部가 마땅하니라.' (중략) '병권은 直臣이 아니면 맡기지 못하므로 특히 너에게 맡기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57)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299쪽.

김형렬이 태을교를 1912년에 창도하고 1918년에는 미륵불교로 바꾸었다. 차경석은 선도교를 창도했고 이 때 강일순의 고제 중 한명인 안내성이 참여했지만 안내성은 1915년에 순천으로 이사하고 1918년에는 무안으로 다시 옮긴 후 1930년에 증산대도교라 개칭했다.

차경석은 1916년부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비밀리에 포교를 했다. 강일순의 여동생과 결혼한 조철제는 1918년 김형렬의 미륵불교에 가세했다가 1919년 무극대도교를 창도했다. 강일순의 첩인 고씨는 차경석에게 가세했다가 1919년에 별도로 태을교를 창설했다. 이렇게 강일순의 제자들은 각각 강일순을 받들며 독자적인 종파를 세웠다. 『조선의 유사종교』등 일제 측 문헌에는 강일순 사후, 제자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분열하여 제각각 십여 종의 교파를 세웠다고 보고 있지만⁵⁸⁾ 교단 쪽의 문헌에 의하면 이것은 강일순의 유지였다고 한다. 즉, 증산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제각기의 신앙을 수립하여 증산을 교조로 세워 난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순리로 본 것이다.⁶⁰⁾

이런 과정에서 차경석 일파는 제주도를 태을교도의 나라로 만들려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 1903년에 이미 강일순이 제주도를 다녀간 이후 제주도에 태을교는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안봉려관의 관음사 창건, 김연일이 1913년경에 제주도에 입도한 데 이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각 동리의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주도 안의 일본인 관료와 일본인 상인들을 무력으로 몰아내면 승산이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 측은 진작부터 태을교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터라 신속히 목표의 관현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탄압함으로써 이들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사실 태을교는 창설 이래 일제 측이 예의주시하던 교단이었다. 1915년 정읍 가와하라川原 현병은 교단의 정읍 본부를 수색하고 심문했는데 협

58) 위의 책, 300쪽.

59)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298쪽.

60)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76, 224쪽.

의는 “차경석은 머지않아 조선이 독립하고 자신은 황제가 될 것이라고 하여 농촌의 우민을 유인하여 금전을 사기하고 음모를 꾀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차경석의 교도인 金松煥이 전주 헌병대에 제소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1916년 6월에 차경석을 川原헌병분견소에 체포 구인했지만 실증이 없어 10일 만에 석방하기도 했다.⁶¹⁾ 1919년 3.1운동 당시에도 경기도 고양의 태을교도들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활동한 바 있었다.⁶²⁾ 조선군 참모부가 1922년에 작성한 「태을교에 관하여」에는 강원도 일대 및 삼남지방에서 수천 명의 교도를 검거했다고 하여⁶³⁾ 그 세력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당시의 국권회복을 목표로 한 태을교단의 활동이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당국도 주의하고 있었으며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신속히 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191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 태을교도들의 검거에 돌입하여 목포에까지 확대시키고자 했지만 목포에서 체포한 고씨 부인은 직접적으로 관계한 혐의가 없어 방면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 조선군 참모부 보고에는 “무오년 11월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그 교도의 검거를 시작하여 목포에까지 손길을 뻗었지만 결국 모두 방면해버렸다.”⁶⁴⁾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태을교 계열의 교단이 각각 독자적으로 분산적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일제당국의 범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사 계획을 확정된 9월 19일은 음력 8월 15일로 태을교의 연중 祭日에 속하는 날이다. 태을교에서는 정월1일, 3월 25일, 6월 24일, 8월 15일, 그리고 강일순의 생일인 9월 19일, 동지를 연중 제일로 지키고 있다.⁶⁵⁾

61)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312쪽.

62) 「密第33號其114國權恢復を目的とする團員の檢舉」, 『大正8年乃至10年共7冊其3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陸軍省,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63) 朝鮮軍參謀部, 「密第8號其40, 太乙教に就いて」, 정리번호 0997-0998쪽.

64) 위의 자료, 정리번호 0997쪽.

65)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304~346쪽.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도 제주도에서는 태을교 신도 수가 번성했다. 1924년에 발간된 제주도청의 자료에는

그 후에도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면 고위고관을 준다고 하여 辭訟을 내고 동 교를 믿으면 자손 번영하여 일가행복을 향유한다고 감언을 일삼아 우민을 속여 금은재산을 사취하는 것을 일삼고 본도 경찰서에서도 십수차례에 걸쳐 奸徒를 검거했지만 비밀리에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나 전 교도의 전멸을 꾀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우민 중 재산을 빼앗겨 무일푼이 된 자가 다수이다.

차경석은 당국이 주목하는 것을 간취하고 이름을 보천교로 바꾸어 내용을 개선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우민 회유 금전 흡수에 노력하고 있다. 1922년 성 내에 진정원 정교부를 두고 본년(1923) 3월 승격하여 眞正院이 되었다. (중략) 목하 신도 수만이라고 하여 신도로부터 흡수한 금전을 본부에 보낸다고 하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본도의 발전을 기하려고 하면 도민에게 문명적 지식을 보급하게 하여 우민의 몽매함을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⁶⁶⁾

고 기술하고 있다.

5. 맺음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의 성격은 강일순이 창도한 태을교 계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조성운 교수는 ‘김연일이 불교 승려이면서도 증산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믿는 복잡한 사상적 배경을 갖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⁶⁷⁾고 평가했지만 필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의 정체성을 태을교에서 찾아야

66) 『未開の寶庫濟州島』, 43~45쪽.

67) 조성운,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13쪽.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불교계가 주도했다는 연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34년의 『고등경찰요사』와 후손들의 구술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이 자료보다 선행하여 당시의 일제 측 관변 자료에서는 김연일을 차경석과 함께 태을교도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가 이용되지 못함으로써 오해를 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정구용 등 재판 관련 기록물의 진술에도 김연일이 불교도라기보다 태을교도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산재해 있음에도 그동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의 후손들이 선조를 불교도로 증언하는 것은 당시에 불교가 외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몰랐던지 아니면 태을교(보천교)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싶은 심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그것은 강일순이 창도한 종교가 미신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후손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응이다.

1910년대 조선은 토착종교가 왕성하던 시대였다.⁶⁸⁾ 그리고 당시의 토착종교를 ‘유사종교’로 분류하여 미신으로 간주하고 폄하하려던 것이 일제 식민당국의 종교정책이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이들 토착종교가 그 어느 종교보다 국권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들을 탄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 작용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불교계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 항일운동의 성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國亡과 일제의 무단통치, 그리고 사상적 혼돈이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당시의 민중이 어떤 종교에 마음을 기울이고 무엇을 희망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⁶⁸⁾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74쪽.

- 투고일 : 2015. 7. 13 / 심사완료일 : 2015. 7. 30 / 게재확정일 : 2015. 8. 13
- 주제어 : 법정사 항일운동, 한국 근대 토착종교, 김연일, 태을교, 선도교, 보천교, 강일순, 차경석

K C I

❖ 참고문헌

『매일신보』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京鍾警高秘第11927號, 「講演會報告に関する件」, 大正13년 9월 28일, 경성중로경찰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高警 제17263호, 太乙教に関する件」, 大正9년6월10일,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高警第36610號, 「太乙教徒檢舉ニ關スル件」 全羅北道知事報告要旨, 1919년12월26일,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8권, 종교운동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密第33號其114國權恢復を目的とする團員の檢舉」, 『大正8年乃至10年共7冊其3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陸軍省,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密第102號其975, 太乙教に関する件」, 『朝鮮事件』 大正8年乃至10年共7冊其6, 陸軍省大日記, 일본 방위연구소,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23, 국가기록원 소장.

朝鮮軍參謀部, 「密第8號其40, 太乙教に就いて」, 『大正11年朝不逞鮮人狀況報告』, 陸軍省, 일본방위연구소,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京城, 森書店, 1921.

『未開の寶庫濟州島』, 全羅南道濟州島庁, 1924.

中口光太郎, 「朝鮮に於ける迷信犯罪(4)」, 『警務彙報』 182호, 1920.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편, 『제주도-독립운동사적지』(국내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 사보고서Ⅱ), 2010.

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朝鮮獨立運動(民族主義運動編)』 第一卷分冊, 原書房, 1967.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증산의 생애와 사상』, 대순진리회출판부. 1979.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76.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편, 『증산도도전』, 대원출판사, 1992.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2005.12.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집, 2002.12.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12.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연구」, 『종교학연구』 15, 1996.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2002.12.

한금순, 『근대제주불교사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한국근대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K C I

❁ 국문요약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윤 소 영

1918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의 법정사의 주지인 김연일(金蓮日)과 제주도민 400여 명이 일으킨 항일운동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불교계가 주도한 항일운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통설에 의문점을 갖고 그동안 이용되지 않은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 운동이 불교도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태을교(太乙教=仙道敎)가 주도한 것임을 논증한 것이다.

이 글에서 새롭게 이용한 자료는 1922년에 조선군참모부가 작성한 보고서「태을교에 관하여(太乙敎に就いて)」, 1920년에 고등경찰이 일본내각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기관에 보낸 보고서인「태을교 포교에 관한 건(太乙敎布敎に關する件)」, 1924년에 제주도청이 발간한 『미개의 보고 제주도(未開の寶庫濟州島)』 등이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주동자 김연일은 승려가 아니라 태을교의 간부이다. 1909년 강일순이 사망한 후 그의 제자인 차경석이 선도교라는 일 분파를 만들어 전국에서 신도를 모집하였다. 김연일은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으로 제주도 법정사의 주지로 부임하였는데, 차경석과 함께 모의하여 제주도 법정사에서 선도교도를 이끌고 국권회복과 함께 교세확장을 위해 봉기한 것이다.

또한 법정사 창건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이 근대에 제주도에 처음으로 창건된 관음사라는 절인데 이 절도 불교 사찰로 창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908년경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 자신이 술회한 창건담을 보면 태을교적인 종교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이 종교는 성립 당초

부터 강일순 자신이 미륵불을 자처하였고 불교적인 요소를 강하게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불교 사찰의 승려의 도움으로 선도교의 신자를 불교 신자로 위장시키기도 하였다. 즉, 불교사찰을 외피로 이용하여 일제의 탄압을 피하면서 국권회복운동과 교세확장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1910년 전후 창건된 법정사(法井寺)라는 절의 명칭도 불교적인 명칭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차경석이 1924년에 선도교를 개명하여 보천교를 창설하는데 그 종교의 상징으로 ‘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미는 물은 만물을 생성 양육하므로 보천교의 덕화가 널리 중생에 미친다는 것을 표상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불교도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 아니라 김연일 등 태을교(선도교)도들이 제주도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국권회복과 함께 태을교(선도교)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영문요약

Re-examination of the Religious Identity
behind Beobjung Temple's Resistance Movement
against Japan

Yoon, So-young

Beobjung Temple's resistance movement against Japan between Oct 5th and 7th, 1918 by Kim Yeon Il, the head monk of Beobjung Temple, and 400 residents in Jeju Island, has always been claimed as a buddhist-led movement. This research questions the validity of this claim, and proves this movement was actually led by Taelgyo(太乙教) according to unused historical records.

The materials used for the research are "About Taelgyo", a report written by the General Staff Office of Chosun Military in 1922, "Case of Taelgyo Propagation", another report by the High Grade Police that was sent t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other several departments in 1920, "Undeveloped Repository, Jeju", published by Jeju-do Office in 1924, and etc.

According to the materials, the leader of the movement, Kim Yeon Il was not a monk, but an executive from Taelgyo. After the death of Kang Il Soon, his apprentice, Cha Kyung Seok created a new denomination, Sundogyo(仙道教), and enlisted member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Kim Yeon Il, originally from Youngil-gun Gyeongsangbuk-do, was inducted to become the head monk of Beobjeong Temple. Kim Yeon Il and Cha Kyung Seok initiated the resistance movement along with the members of Beobjung

Temple in order to not only rise against the Japanese, but also to expand their congregation.

Also, strictly speaking, Gwaneum Temple(觀音寺), the very first temple established in Jeju in Korean modern times, which played a key role assisting the foundation of Beobjung Temple, is not entirely a buddhism-based establishment either. Anbongnyeogwan built the Gwaneum Temple. Her religious experience indicates the peculiarities of Sundogyo. From its establishment of Sundogyo, Kang Il Soon claimed to be Maitreya Buddha and had a strong buddhist influence. Also, with help from some buddhist monks, he even disguised his members as a buddhist monk to protect them from Japan's supervision while maintaining their agenda to expand congregation and resist Japan intact.

Furthermore, the name of Beobjung Temple (法井寺), established around 1910, is hardly a buddhist term either. Interestingly, Cha Kyung Seok renamed Sungyodo and established Bocheongyo(普天教), the symbol of which is “井.” This symbol signifies water nurturing all creation, meaning its moral influence on people.

Thus, Beobjung Temple's resistance movement against Japan in 1918 was led by Kim Yeon Il and the members of Taeulgyo (Sundogyo) with purpose to fight the Japanese in Jeju, and to foster their religion to prosper.

Key words: Beobjung Temple's resistance movement against Japan, Indigenous beliefs of Korean modern times, Kim Yeon Il, Taeulgyo, Bocheongyo, Sundogyo, Kang Il Soon, Cha Kyung Seok